

완벽주의가 능동-수동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

최 민 식

유 태 용[†]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완벽주의가 능동-수동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목표지향성과 회피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데 있다. 연구를 위해 다양한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2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완벽주의의 하위차원 중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학습목표지향성과 정적인 관계, 회피목표지향성과 부적적인 관계를 보였다. 반면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회피목표지향성과 정적인 관계, 학습목표지향성과 부적적인 관계를 보였다. 목표지향성과 능동-수동 지연행동과의 관계에서 학습목표지향성은 능동 지연행동과 정적인 관계, 수동 지연행동과 부적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회피목표지향성은 수동 지연행동과 정적인 관계, 능동 지연행동과는 부적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능동-수동 지연행동에 미치는 과정에서 회피목표지향성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또한 개인기준 완벽주의가 능동-수동 지연행동에 미치는 과정에서 학습목표지향성은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 제한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개인기준 완벽주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학습목표지향성, 회피목표지향성, 능동 지연행동, 수동 지연행동

* 이 논문은 2016년도 광운대학교 연구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보다 나은 논문이 되도록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유태용,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tyoo@kw.ac.kr, 02-940-5422

Toffler(1981)와 Drucker(1980)가 예견했듯이 오늘날의 기업환경은 지식사회의 도래로 인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해지고 경쟁적이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업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맞게 빠르게 대처하고 무한한 경쟁 속에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기업들은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업무처리와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일의 순서를 미루거나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는 지연행동(procrastination)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기조절 전략의 실패’로 여기고 조직 내에서 지양해야 할 개인의 부적응적 행동이나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간주하여 이를 통제하기 위한 조직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연행동의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능동 지연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연행동이 반드시 수행이나 효능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Chu와 Choi(2005)는 기존의 고전적 개념의 지연행동을 수동적 지연행동으로 분류하고, 능동적 지연행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면서 의도적으로 지연행동을 결정하고, 시간 압박이 있는 환경을 선호하며, 마감시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행동을 능동적 지연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경험적 연구들도 지연행동의 긍정적 측면을 지지하고 있다. Lay, Edwards, Parker와 Endler(1989)의 연구에서는 학업적 지연행동을 하는 학생이 시험 직전의 몰입정도가 훨씬 높았고, Vacha와 McBride(1993)의 연구에서도 지연행동을 하는 학생이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다고 보고했다. Knaus(2000)도 계획이나 정보수집을 위

한 전략적 미루기는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며, 시간압박은 오히려 창의성을 도와줄 수 있다고 보고했다. Grant(2016) 역시 전략적으로 미루는 행동이 오히려 조직구성원의 창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지연행동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조직의 효과성과 개인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예측할 수 있는 능동적 지연행동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필요하다.

지연행동이 학업이나,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지연행동 연구들은 주로 교육 및 학업 장면에서의 학업 지연행동을 다루었다. 조직 환경과 조직 내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학업과는 구별이 된다.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지만, 학교는 금전적 보상과 무관한 학업에 열중하는 순수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 내 구성원들의 능동적-수동적 지연행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지연행동에 대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밝힌다면 조직구성원의 적응과 효과적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직차원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내 구성원의 능동 지연행동과 수동 지연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적응적 측면의 개인 특성인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측면의 개인 특성인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완벽주의는 지연행동을 예측하는 선행변인으로 많은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었다(Ellis & Knaus, 1977; Flett, Blankstein, Hewitt, & Koledin, 1992; Solomon & Rothblum, 1984). 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모든 지연행동이 동일한 원

인에 의해 발생되지 않고 동일한 결과를 일으키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기존의 부적응적 측면으로만 인식되었던 지연행동에 관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 지연행동(즉, 수동적 지연행동)이 아닌 능동적 지연행동에 완벽주의가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지연행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목표지향성이 완벽주의와 능동-수동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위의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완벽주의)이 개인의 내적 동기(목표지향성)에 영향을 주고, 개인의 동기가 행동(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지연행동이 발생하는 개인수준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매개과정의 이해는 연구자들이 해당 현상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완벽주의

완벽주의(perfectionism)에 관해서 연구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는 않지만, 공통적으로 완벽주의는 자신의 일, 행동에 대해 모든 일을 완벽히 해내야 한다는 생각과 행동 방식을 의미한다. 완벽주의란 개념을 처음으로 정의한 Hamacheck(1978)은 완벽주의를 단일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고 ‘정상적 완벽주의’와 ‘신경증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1980년대까지 연구자들은 완벽주의의 부정적 특성이나 역기능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완벽주의와 정신병리, 불안, 불편감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만 밝혀왔다. Burns(1980)는 완벽주의에 대해 도달하기 어려운 기준을

강박적으로 추구하고 자기의 수행에 대해 의심하고 자신의 가치를 전적으로 생산성과 성취에 기반해 평가하는 병리적인 특성으로 보았으며, Pacht(1984) 역시 완벽주의를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특성으로 보았다.

1990년대 초부터 연구자들은 완벽주의에 대한 초기의 연구자들의 개념과는 달리 완벽주의의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였고(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Hewitt & Flett, 1991), 이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척도개발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이전까지 완벽주의를 부적응적 측면을 가진 성격특질로 봤던 연구자들의 시각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이용한 다양한 경험연구가 실시되었다.

Frost 등(1990)은 완벽주의를 개인적 특성의 측면으로 보고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제작하였다. 완벽주의자들이 보이는 인지적, 행동적 특성 및 발달적 측면을 고려해 완벽주의자들의 공통 특징 6가지를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6개 차원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rost'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개발하였다. FMPS의 6가지 차원은 실수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 민감하고, 두려워하는 ‘실수에 대한 염려(Concern over Mistakes)’,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경향을 포함하는 ‘개인 기준(Personal Standards)’, 부모가 본인에게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부모의 기대(Parental Expectation)’, 부모가 자신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이라고 지각하는 ‘부모의 비난(Parental Criticisms)’, 자신의 수행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한 경향을 의미하는 ‘수행에 대한 의심(Doubt about Action)’, 정리정돈과 질서화 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하

는 ‘조직화(Organization)’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Hewitt과 Flett(1991)은 완벽주의의 대인관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3가지 차원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ewitt’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를 개발하였다. HMPS의 3가지 차원은 자신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자기 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배우자, 자녀 등과 같은 타인의 능력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기준을 세우는 ‘타인지향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그리고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 대해 높은 기대와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각하며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로 구성되어 있다.

FMPS와 HMPS의 척도를 이용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HMPS의 하위차원인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FMPS의 개인기준 차원은 적응적인 특성과 관련이 높았으나, HMPS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FMPS의 실수에 대한 염려 같은 경우에는 부적응적인 특성과 관련이 높게 나타났다. Frost, Heimberg, Holt, Mattia와 Neubauer(1993)의 연구에서도 FMPS의 6가지 하위 차원과, HMPS의 3가지 하위 차원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적응적인 특성을 지닌 ‘긍정적 성취 추구’ 요인과 부적응적인 특성을 가진 ‘부적응적 평가염려’ 요인으로 나타났다.

Dunkley와 Blankstein(2000)은 이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평가염려 완벽주의(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와 ‘개인기준 완벽주의(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의 두 가지 차원의 완벽주의를 제안하였다.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자신을 엄격하게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타인의 비판과 기대를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FMPS의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과 HMPS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어, 완벽주의의 부적응적인 측면을 대표한다. 반면,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본인에게 높은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타인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FMPS의 개인적 기준과 HMPS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차원을 포함하고 있어서 완벽주의의 적응적인 측면을 내포한다.

선행 연구에서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결과변인들과 차별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Slaney와 Ashby(1996)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불안, 대인문제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Chang과 Rand(2000)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우울이나 불안과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적응적 완벽주의는 대학생의 일반적 자기 효능감과 시험에서의 수행, 학점 등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ieling, Israeli, Smith, & Antony, 2003; LoCicero & Ashby, 2000; Verner-Filion & Gaudreau, 2010). 국내 연구에서는 기능적 완벽주의자와 역기능적 완벽주의자 집단으로 나누고, 역기능적 완벽주의자 집단에 비해 기능적 완벽주의자 집단이 자신의 완벽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대처양식을 보였고, 귀인양식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정명인, 오수성, 신현균, 2005).

본 연구에서는 Dunkley와 Blankstein(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완벽주의가 적응적 차원과 부적응적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해서

완벽주의를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평가염려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이러한 두 가지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능동-수동 지연행동

지연행동(procrastination)에 대해서 학자들이 유사하게 정의하지만, 개념적 정의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Solomon과 Rothblum(1984)은 지연행동을 “주관적인 불편을 느낄 수준까지 불필요하게 과업을 미루는 행위”라고 정의했고, Lay(1986)는 지연행동을 성격 특성으로 여겨서 “완성해야 할 과제를 미루는 비합리적인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지연행동이 안정적이고 만성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들어 과제의 수행과 의사결정을 미루는 특질로 지연행동을 정의하기도 한다(Milgram, Mey-Tal, & Levison, 1998). Steel(2007)은 메타분석을 통해 지연행동을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을 인지하면서도 자발적으로 할 일을 미루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지연행동은 주관적인 불편을 느끼고 부정적인 결과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과제를 지속적으로 미루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지연행동에 대한 연구는 지연행동을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 부정적인 선행변인이나 결과변인과의 관련성을 다루었다. 지연행동의 원인에 대해 Solomon과 Rothblum(1984)은 실패공포와 과제 회피가 지연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았고, 이는 높은 우울, 비합리적 사고, 낮은 자존감, 불안과도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Van Eerde(2003a)의 연구에서 성격 5요인 중 성실성이 수동 지연행동과 가장 강한 부적상

관을 나타냈다. 또한 수동 지연행동을 증가시키는 주요인으로 완벽주의를 언급하였다(Burns, Dittmann, Nguyen, & Mitchelson, 2000; Flett et al., 1992). 반면 조직 장면에서의 지연행동이 예측하는 결과변인에 대해서 Nguyen, Steel과 Ferrari(2013)는 지연행동이 더 낮은 연봉, 짧은 고용기간, 높은 실직 가능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했다.

반면, 앞선 연구들이 지연행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Ferrari, Johnson과 McCown(1995)은 지연행동이 의도를 갖고 있는 행동임을 강조하였다. 즉, 지연행동이 종종 자기 패배적이지만 때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 논리적인 행동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감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함으로써 스릴을 추구하는 감각추구 동기에서 비롯된 각성형과 자존심 저하를 가져오는 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공포에서 비롯되는 회피형으로 분류하였다. 최근에는 지연행동을 능동 지연행동과 수동 지연행동으로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Chu & Choi, 2005). 이는 지금까지 지연행동이 역기능적이라는 시각과는 반대로 지연행동의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Chu와 Choi(2005)는 능동 지연행동을 의도적으로 결정하고, 시간 압력 하에서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마감시간까지 과제를 완료할 능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결과도 만족스러운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능동 지연행동은 수동 지연행동과는 다른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Choi와 Moran(2009)은 능동 지연행동 척도를 개발하였고 능동 지연행동자의 4가지 대표 특성을 확인하였다. 첫째, ‘결과 만족’은 지연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

과를 만족스럽게 성취할 수 있고, 시간 안에 완료된 결과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둘째, ‘시간 압박 선호’는 시간적 압박이 부정적 심리적 상태를 불러일으키기 보다는 오히려 도전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셋째, ‘의도적 지연 결정’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있는 과업을 우선시하고 고의적으로 과업을 뒤로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마감 능력’은 목표에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고, 과업을 마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능동 지연행동에 대한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기 때문에 능동 지연행동을 예측하는 예측변인과 결과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많지 않다. Choi와 Moran(2009)은 능동 지연행동 척도를 개발하며 기존의 부적응적 지연행동을 ‘수동 지연행동’으로 정의내리고, 수동 지연행동과 관계가 있는 변인들과 상관을 살펴보았는데 능동 지연행동은 삶의 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김희정(2010)의 연구에서는 높은 자존감과 내적통제소재가 능동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슬기(2014)는 능동 지연행동이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검증했다.

소개된 지연행동 연구들의 대부분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업 지연행동 연구이지만 지연행동은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Klingsieck(2013)은 학업 지연행동과 업무지연행동을 동일한 생활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그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을 학업과 업무, 매일 반복되는 의무, 건강, 가족, 여가, 사회적 관계의 여섯 영역으로 나눠 지연행동이 영역별로 어떤 특수성을 보이는가를 연구하였는데, 그 중

학업 및 업무관련 장면에서 지연행동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고, 마감일 등 여러 외적요인에 의해 지연행동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지연행동은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업무 지연행동을 의미하며, Chu와 Choi(2005)의 주장을 근거로 지연행동의 긍정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기존의 고전적인 개념의 지연행동인 수동 지연행동이 능동 지연행동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연행동을 ‘능동 지연행동’과 ‘수동 지연행동’ 두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목표지향성

일반적으로 목표지향성(goal-orientation)이라는 구성개념은 개인이 성취 상황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회피 혹은 접근하는 성취동기의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Dweck, 1986). 그러나 연구자들마다 목표지향성에 대한 개념적 틀에는 서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목표지향성을 개인의 특성(trait)으로 보는 연구자들(Bell & Kozlowski, 2002; Button, Mathieu, & Zajac, 1996; Towler & Dipboye, 2001)이 있는가 하면, 목표지향성이 특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상태(state), 즉 동기적 요소로 보는 연구자들도 있다(Karabenick & Collins-Eaglin, 1997; VandeWalle, Cron, & Slocum, 2001). 그러나 많은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목표지향성이 중요한 동기변인으로 작용하여 직무를 비롯한 여러 성취상황에서의 정서, 인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Brett & VandeWalle, 1999; Elliot & Church, 1997; Payne, Youngcourt, & Beaubien, 2007).

Dweck(1986)은 목표지향성을 학습목표지향성(learning goal-orientation)과 수행목표지향성(performance goal orientation)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학습목표지향성은 도전적인 상황에서 숙달을 통해 능력을 확장하고,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지향성을 의미한다. 반면, 수행목표지향성은 호의적인 평가를 추구하고, 부정적인 평가 및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지향성을 의미한다. 즉, 학습목표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열의를 가지며, 수행목표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타인으로부터의 호의적 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부정적인 평가나 판단은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Middleton과 Midgley(1997)는 Dweck(1986)의 2차원의 목표지향성 구조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3차원의 목표지향성을 제안했다. 그들은 2차원 구조의 목표지향성 모형은 학습자가 가지는 목표의 복잡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한쪽의 목표지향성만을 강조한 까닭에 목표지향성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3차원의 목표지향성 모형을 제안하였다. VandeWalle(1997)은 기존의 수행목표지향성이 '비우호적 평가 및 판단을 회피하려는 욕구'와 '우호적인 평가 및 판단을 추구하는 욕구'를 포함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수행목표지향성을 회피목표지향성(avoiding goal orientation)과 증명목표지향성(proving goal orientation)으로 구분하였다. 즉, 목표지향성을 학습목표지향성, 수행회피목표지향성, 수행증명목표지향성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Pintrich(2000)는 학습목표지향성을 접근과 회피로 구분하여 2x2 구조

의 성취목표 구조를 제안했다. 이처럼 목표지향성을 2차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3차원, 다차원 구조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VandeWalle 등(2001)의 메타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증명목표지향성과 회피목표지향성의 차원을 구분하는 것이 수행목표지향성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성을 학습목표지향성, 증명목표지향성, 회피목표지향성의 3차원으로 나누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3차원 모델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목표지향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요약해보면, 초기에는 교육심리학과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학습목표지향성이 학업동기와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로 연구했다(Chen & Mathieu, 2008; Klien, Noe, & Wang, 2006). 그러나 최근에는 조직 장면에서 목표지향성이 직무만족이나 직무수행과 같은 조직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김솔이, 유태용, 2010; 은영신, 유태용, 서학삼, 2012). 일반적으로 학습목표지향성은 수행을 비롯한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변인과 연관되는 반면, 회피목표지향성은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변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증명목표지향성은 긍정, 부정의 효과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mes, 1992; VandeWalle, Brown, Cron, & Slocum, 1999).

완벽주의와 목표지향성의 관계

Campbell과 Di Paula(2002)에 의하면 완벽주의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자기 개념의 일부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취동기 및 목표추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성취동기는 개인의 태도 및 행동의 개인차를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성취동기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목표지향성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Elliot & McGregor, 2001).

목표지향성의 세 가지 하위 차원 중 학습목표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성취상황에서 새로운 역량을 학습하여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즉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역량 향상에 더욱 관심이 있어, 보다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것을 좋아한다. 반면 수행목표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수행목표지향성 중 증명목표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고 증명받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반면, 회피목표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평가받거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학습목표지향성은 다양한 긍정적인 선행변인과 연관되지만, 회피목표지향성은 다른 부정적 선행변인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증명목표지향성은 긍정적인 변인과 부정적인 변인 모두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벽주의와 목표지향성 간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학습목표지향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수행회피목표지향성과는 부적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회피목표지향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학습목표지향성과 부적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정, 2007; 계수영,

2009; 이미화, 류진혜, 2002; 추상엽, 2008; Eum & Rice, 2011; Stoeber, Stoll, Pescheck, & Otto, 2008).

앞선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완벽주의의 두 가지 차원은 서로 다른 목표지향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적응적인 특징의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자기 스스로가 높은 목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덜 민감하고 자신의 장기적인 역량개발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즉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학습목표지향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소극적인 회피목표지향성과는 부적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부분적 실패도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직무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잘하지 못할 상황을 회피하고자하는 회피목표지향성과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대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학습목표지향성과는 부적의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추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완벽주의는 목표지향성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학습 목표지향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회피 목표지향성과 부적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학습 목표지향성과 부적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회피 목표지향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목표지향성과 지연행동의 관계

목표지향성은 개인이 어떤 활동을 어떤 이유로 행동할 것인가에 영향을 준다. 즉, 개인이 어떤 목표지향성을 가지는가에 따라 개인의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학습목표지향성을 가진 개인은 자신의 능력향상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며, 자기주도적인 행동전략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반면 회피목표지향성을 가진 개인들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역량이 잘 드러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낮다고 지각될 때는 도전적 과제를 회피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나 판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수동적인 행동전략을 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목표지향성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Howell과 Watson(2007)은 숙달목표지향성을 접근-회피의 두 유형으로 나눈 2x2 구조의 목표지향성과 학업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학업 지연행동이 수행목표지향성과는 유의한 상관 없이, 숙달 접근 목표지향성과 부적의 상관, 숙달 회피 지향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McGregor와 Elliot(2002)은 수행회피 목표지향성이 학업지연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밝혔고, Wolters(2003)는 숙달목표가 지연행동과 부적의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경호(2010)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숙달목표는 학업성취와 과제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수행목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상엽(2008)의 연구에서는 회피목표지향성과 지연행동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

었다. 계수영(2009)도 회피목표지향성이 학업 지연행동과 정적인 상관, 숙달목표지향성은 학업 지연행동과 부적의 상관을 지닌다는 것을 보고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증명목표지향성과 지연행동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숙달목표와 동일한 개념인 학습목표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개념인 능동 지연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고 수동 지연행동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회피목표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수동 지연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고 능동 지연행동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했다.

가설 2. 목표지향성은 지연행동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학습목표지향성은 능동 지연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학습목표지향성은 수동 지연행동과 부적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회피목표지향성은 능동 지연행동과 부적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4. 회피목표지향성은 수동 지연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간 관계에서 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

완벽주의는 고전적 개념의 수동 지연행동을 예측하는 선행변인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Ellis & Knaus, 1977; Solomon & Rothblum,

1984). 하지만 초기에는 완벽주의를 단일차원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지연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구자들 간에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Muszynski & Akamastu, 1991; Solomon & Rothblum, 1984). 1990년대에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가 개발됨에 따라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간 관계를 입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Frost 등(1990)의 연구에서는 그들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MPS)의 하위차원과 지연행동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실수에 대한 염려 요인이 지연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Flett 등(1992)의 연구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MPS)의 하위차원과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차원이 지연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미정, 2006; 추상엽, 2008).

수동 지연행동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는 것에 반해, 기능적인 측면의 능동지연행동과 완벽주의 간의 관계성을 밝힌 연구는 없었다. Taura, Abdullah, Roslan과 Omar (2015)는 나이지리아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능동지연행동의 선행변인을 밝히기 위해, 완벽주의와의 상관을 살펴보았지만 유의한 상관을 밝히지 못했다. 다만 자기조절전략에 의해 매개되는 완전매개효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완벽주의와 능동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밝힐 수 있는 매개변인의 역할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Kanfer(1992)는 원근거리 체계(Distal-Proximal framework)를 통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근접 구성개념(proximal construct)과 원격 구성개념(distal construct)으로 구분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성격과 같은 개인 특성은 원격 구성개념에 해당하고 행동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개인의 목표와 같은 근접 구성개념은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의 특성은 개인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동기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인 특성인 완벽주의는 동기적 상태인 목표지향성을 통해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한 개인의 완벽주의와 목표지향성 간 관계와 목표지향성과 지연행동 간 관계에서 여러 경험적 연구들은 완벽주의가 목표지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목표지향성은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계수영(2009)은 학업장면에서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 관계에서 목표지향성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이론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인 완벽주의가 동기요인인 목표지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목표지향성은 개인의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학습목표지향성은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려는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개인기준 완벽주의자는 높은 학습목표지향성을 가지고 능동적 지연행동을 하게 되고 수동적 지연행동은 덜 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역량개발보다는 타인으로부터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은 학습목표지향성을 가져 역량개발의 의지가 낮기 때문에 능동적 지연행동을 덜 하고 수동적 지연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회피 목표지향성은 부정적인 판단이나 결과를 회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패와 부정적 평가 대한 두려움을 가진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는 회피목표지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수동적 지연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고 능동적 지연행동을 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반면에 개인기준 완벽주의자는 반대로 낮은 회피목표지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능동적 지연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고 수동적 지연행동을 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토대로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간 관계에서 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에 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학습목표지향성은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1 학습목표지향성은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능동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2 학습목표지향성은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수동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3 학습목표지향성은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능동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4 학습목표지향성은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수동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 회피목표지향성은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1 회피목표지향성은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능동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2 회피목표지향성은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수동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3 회피목표지향성은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능동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4 회피목표지향성은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수동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국내 다양한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27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24부의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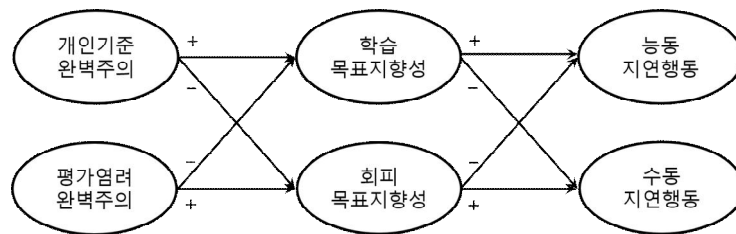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지를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203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203명 중 남성이 118명(58.1%), 여성이 85명(41.9%)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9.24세(SD=10.18)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59명(28.2%), 30대 48명(23.0%), 40대 64명(30.6%), 50대 38명(18.2%)이었다. 학력은 중졸 이하 1명(0.5%), 고졸이 14명(6.9%), 대학교(2-3년제) 졸업 18명(8.9%), 대학교(4년제) 졸업 136명(67.0%), 대학원 이상이 34명(16.7%)이었다. 근무기간은 1개월에서 368개월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104.1개월(SD=104.3개월)이었다. 직종은 연구/개발이 81명(39.9%)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영업은 16명(7.9%), 관리 및 지원 48명(23.6%), 생산/기술 9명(4.4%), 서비스 33명(16.3%) 기타 16명(7.9%)이었다. 직급은 사원급이 53명(26.1%)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급 46명(22.7%), 과장급 25명(12.3%), 차장급 27명(13.3%), 부장급 44명(21.7%), 임원급 이상 9명(3.9%)이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문항들은 Likert형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완벽주의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서 손진아와 이선희(2012)가 Frost 등(1990)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중 개인기준과 평가염려의 하위 척도를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개인기준 완벽주의 7개 문

항의 대표적 예는 '나는 무슨 일에서든지 최고가 아니면 싫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목표를 높게 잡는다' 등이 있고, 평가염려 완벽주의 7개 문항의 대표적 예는 '내가 다른 사람만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내가 뒤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와 '내가 실수를 저지르면 사람들은 나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인기준 완벽주의의 내적 일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이었고,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내적 일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이었다.

수동 지연행동

수동 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Lay(1986)가 개발한 일반적 지연행동 척도(General Procrastination: GP)를 임성문(200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지연행동의 행동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가 조직 장면에서의 지연행동을 측정하는 연구이므로, 총 20개의 문항 중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8개 문항을 추출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대표적 예는 '나는 일반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의 시작을 미룬다', '나는 너무 자주 "그 일은 내일 할 거야"라고 말한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수동 지연행동 척도의 내적 일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이었다.

능동 지연행동

지연행동의 긍정적 측면을 나타내는 능동 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Choi와 Moran(2009)의 능동적 지연행동 척도(Active Procrastination Scale; APS)를 김지연과 신희천(2013)이 번안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

과 만족', '시간 압박 선호', '의도적 지연 결정', '마감 능력'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만족 문항은 '마지막까지 과제를 미루는 경우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압박 선호 문항은 '지나친 시간적 압박을 받으면 긴장되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도적 지연 결정 문항은 '나는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일부러 미뤄 놓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감 능력 문항은 '나는 때때로 내가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능동 지연행동 척도의 내적 일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3이었다. 하위요인별 내적일치 신뢰도 계수는 '시간 압박 선호'는 .85, '의도적 지연결정' .67, '마감 시간 충족' .85, '결과만족' .71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목표지향성

목표지향성 중 학습목표지향성과 회피목표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VandeWalle(1997)이 개발한 문항을 정성훈과 유태용(2008)이 번안한 학습목표지향성 5개 문항, 회피목표지향성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습목표지향성 문항은 '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업을 즐긴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나의 업무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내게는 더 중요하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피목표지향성 문항은 '내가 잘하지 못할 것 같은 업무상황은 회피하는 편이다', '남들에게 무능하다고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 새로운 업무를 맡기를 꺼리는 편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목표지향성의 내적 일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는 .85이었고, 회피목표지향성의 내적 일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이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에 사용한 변인의 내적 일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Mplus 7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서 각 잠재변인의 측정 변수에 대한 문항합산(item-parceling)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는 경쟁모형 전략을 사용하였다. 넷째, 대안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최종 채택된 연구모형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ias-corrected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의 기술 통계치 및 상호 상관

연구에 포함된 측정변인들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1에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호상관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선행변인인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능동 지연행동($r=.30, p<.01$),

표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호상관

| 변인 | 1 | 2 | 3 | 4 | 5 | 6 |
|-------------|--------|--------|--------|--------|--------|-------|
| 1 개인기준 완벽주의 | (.81) | | | | | |
| 2 평가염려 완벽주의 | .14 | (.83) | | | | |
| 3 학습목표지향성 | .52** | -.03 | (.85) | | | |
| 4 회피목표지향성 | -.32** | .37** | -.44** | (.84) | | |
| 5 수동 지연행동 | -.34** | .14 | -.29** | .33*** | (.84) | |
| 6 능동 지연행동 | .30** | -.29** | .43** | -.59** | -.39** | (.73) |
| 평균(M) | 3.49 | 2.70 | 3.49 | 2.48 | 2.54 | 3.18 |
| 표준편차(SD) | .59 | .71 | .69 | .81 | .67 | .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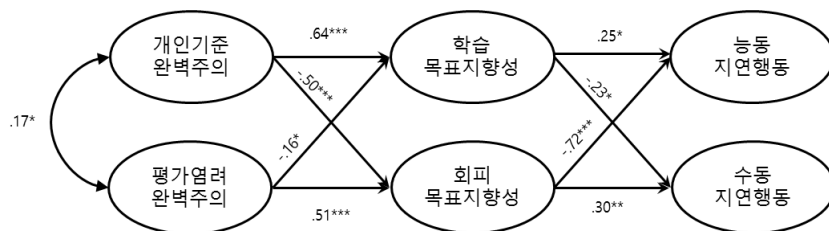
N=203, * $p < .05$, ** $p < .01$ 대각선 ()값은 변인의 내적 일치 신뢰도 계수임.

수동 지연행동($r = -.29, p < .01$)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매개변인인 학습목표지향성($r = .52, p < .01$), 회피목표지향성($r = -.32, p < .01$)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반면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수동 지연행동($r = .14, n.s.$)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능동 지연행동($r = -.29, p < .01$)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매개변인인 회피목표지향성($r = .37, p < .01$)과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목표지향성($r = -.03, n.s.$)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변인인 학습목표지향성은 수동 지연행동과($r = -.29, p < .01$), 능동 지연행동($r = .43, p < .01$)

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회피목표지향성은 수동 지연행동과($r = .33, p < .01$), 능동 지연행동($r = -.59, p < .01$)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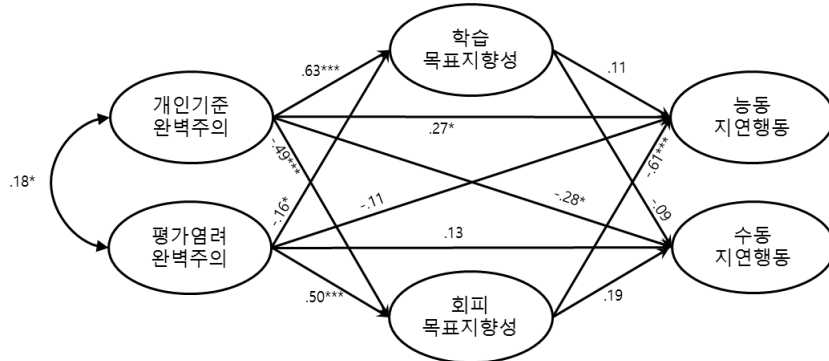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완전매개모형(그림 2)과 개인기준 완벽주의,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능동 지연행동과 수동 지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추가된 부분매개모형(그림 3)을



주. 모형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완전매개모형(연구모형)



주. 모형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 $p < .05$, *** $p < .001$

그림 3. 부분매개모형(대안모형)

표 2.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모델 적합도

| 모형 | χ^2 | df | RMSEA | CFI | TLI | $\Delta\chi^2$ | Δdf |
|------------|------------|-----|-------|------|------|----------------|-------------|
| 연구모형(완전매개) | 301.494*** | 141 | .075 | .919 | .902 | | |
| 대안모형(부분매개) | 293.525*** | 137 | .074 | .921 | .902 | 7.97 | 4 |

*** $p < .001$

비교하여 χ^2 차이 검증을 통해 연구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RMSEA, TLI, CFI 모두 .90 이상으로 우수한 수준의 모형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χ^2 차이 검증 결과, 두 모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Delta\chi^2(4)=7.97, p=.093$),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해 연구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개인기준 완벽주의에서 학습목표지향성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유의하였고($\beta=.64, p<.001$), 개인기준 완벽주의에서 회피목표지향성으로 가는 경로계수($\beta=-.50, p<.001$) 역시 유의하였다. 이는 개인기준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학습목표지향성을 가지게 되며, 반대로 낮은 회피목표지향성

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1-1과 1-2가 지지되었다.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목표지향성 간의 경로계수에서 학습목표지향성으로 가는 경로계수($\beta=-.16, p<.05$)가 유의하였고, 회피목표지향성으로 가는 경로계수($\beta=.51, p<.001$)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은 회피목표지향성이 높은 반면에 학습목표지향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1-3과 1-4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목표지향성과 능동-수동 지연행동 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학습목표지향성이 능동 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계수($\beta=.25, p<.05$)와 수동 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계수($\beta=-.23, p<.05$)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높은 학습목표지향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시간적 압력

을 선호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마감시간 전까지 의도적으로 일을 미루는 능동적 지연행동을 하고 반대로 수동적 지연행동은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2-1과 2-2가 지지되었다. 회피목표지향성이 능동 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계수($\beta = -.72, p < .001$)와 수동 지연행동으로 가는 경로계수($\beta = .30, p < .01$)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회피목표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적응적 측면의 능동 지연행동을 덜 보이는 반면, 부적응 측면의 수동 지연행동은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2-3과 2-4가 지지되었다.

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간접효과) 검증

경쟁모형 전략을 통해 채택된 연구모형에서 개인기준 완벽주의 성격과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격이 학습목표지향성과 회피목표지향성을 거쳐 능동-수동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

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수 추정에 5,000개의 표본을 설정했고, 신뢰구간은 95%이다. 표 3을 보면, 학습목표지향성의 매개경로에서 개인기준 완벽주의 → 학습목표지향성 → 능동 지연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beta = .158, 95\% \text{ BC CI} = .02, .29, p < .05$), 개인기준 완벽주의 → 학습목표지향성 → 수동 지연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beta = -.148, 95\% \text{ BC CI} = -.29, -.01, p < .05$)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과 3-2가 지지되었다. 반면에 평가염려 완벽주의 → 학습목표지향성 → 능동 지연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beta = -.040, 95\% \text{ BC CI} = -.09, .01, \text{ n.s.}$), 평가염려 완벽주의 → 학습목표지향성 → 수동 지연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beta = .038, 95\% \text{ BC CI} = -.01, .08, \text{ n.s.}$)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3-3과 가설 3-4는 기각되었다.

회피목표지향성의 매개경로에서 개인기준 완벽주의 → 회피목표지향성 → 능동 지연행

표 3. 완벽주의와 능동-수동지연에서 목표지향성의 간접효과

| | 추정계수 | 표준오차 | 95% BC 신뢰구간 | |
|---------------------------|----------|------|-------------|-------|
| | | | 하한계 | 상한계 |
| 학습목표지향성 매개경로 | | | | |
| 개인기준 완벽주의-학습목표지향성-능동 지연행동 | .158* | .070 | .021 | .294 |
| 개인기준 완벽주의-학습목표지향성-수동 지연행동 | -.148* | .070 | -.285 | -.011 |
| 평가염려 완벽주의-학습목표지향성-능동 지연행동 | -.040 | .025 | -.089 | .008 |
| 평가염려 완벽주의-학습목표지향성-수동 지연행동 | .038 | .024 | -.009 | .084 |
| 회피목표지향성 매개경로 | | | | |
| 개인기준 완벽주의-회피목표지향성-능동 지연행동 | .358*** | .070 | .221 | .495 |
| 개인기준 완벽주의-회피목표지향성-수동 지연행동 | -.147*** | .051 | -.247 | -.046 |
| 평가염려 완벽주의-회피목표지향성-능동 지연행동 | -.366*** | .079 | -.520 | -.211 |
| 평가염려 완벽주의-회피목표지향성-수동 지연행동 | .150** | .050 | .051 | .248 |

* $p < .05$, ** $p < .01$, *** $p < .001$

등으로 가는 간접효과($\beta = .358$, 95% BC CI = .22, .50, $p < .001$), 개인기준 완벽주의 → 회피 목표지향성 → 수동 지연행동으로 가는 간접 효과($\beta = -.147$, 95% BC CI = -.25, -.05, $p < .001$), 평가염려 완벽주의 → 회피목표지향성 → 능동 지연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beta = -.366$, 95% BC CI = -.52, -.21, $p < .001$), 평가염려 완벽주의 → 회피목표지향성 → 수동 지연행동으로 가는 간접효과($\beta = .150$, 95% BC CI = .05, .25, $p < .01$)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1, 4-2, 4-3, 4-4는 모두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 다른 특성의 완벽주의가 학습목표지향성과 회피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목표지향성과 회피목표지향성이 능동-수동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완벽주의와 능동-수동 지연행동 간 관계에서 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었다.

본 연구로부터 얻은 구체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학습목표지향성과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고, 회피목표지향성과 부적관계를 보였다. 반면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학습목표지향성과는 유의한 부적 관계, 회피목표지향성과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기준 완벽주의자는 학습목표지향성이 높고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는 회피목표지향성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은 회피목표지향성이 높고 학습목표지향성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는 직무상황에서 자신의 역량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거나 성취하려는 동기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학습목표지향성은 능동적 지연행동과 정적인 관련이 있고 수동적 지연행동과는 부적적인 관련이 있었다. 이는 학습목표지향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발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압박 속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능동적인 목적으로 능동 지연행동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의 마감시간 내에 할 일을 마치지 못하고 회피하는 부적응적 측면의 수동적 지연행동은 적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회피목표지향성은 능동 지연행동과 부적적인 관계, 수동 지연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자신의 무능력이 타인에게 비취지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회피목표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수동적인 지연행동을 자주 보이고, 능동적인 지연행동은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학습목표지향성과 회피목표지향성은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능동 지연행동 간 관계에서는 학습목표지향성과 회피목표지향성이 모두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기준 완벽주의자들은 스스로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학습적인 목표와 동기를 가지며 부정적 평가나 시선을 회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행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능동적인 지연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수동 지연행동 간 관계에서도 학습목표지향성과 회피목표지향성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기준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은

학습목표지향성이 높고, 회피목표지향성이 낮기 때문에 수동적 지연행동을 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능동-수동 지연행동 간 관계에서도 회피목표지향성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은 평가에 대한 걱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려는 회피적인 목표를 갖게 되어 능동적 지연행동을 덜 하고 수동적 지연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능동-수동 지연행동 간 관계에서는 가설과 다르게 학습목표지향성이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lliot(1999)은 학습목표지향성도 수행목표지향성과 동일하게 숙달접근목표지향성과 숙달회피목표지향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습목표지향성을 단일 개념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 꾸준히 능력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숙달접근목표지향성과 본인이 학습한 노하우나 능력을 잃지 않으려는 숙달회피목표지향성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예상했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학습목표지향성 간의 부적 관계성이 약하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학습목표지향성이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능동-수동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의 의의 및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지금까지 학업 장면에서 지연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기업 및 조직 장면에서 직장인의 지연행동을 살펴본 실증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지연행동의 주요한 선행변인으로 여겨져 왔던 개인 특성변인인 완벽주의 성격과 능동-수동 지연행동과의 관계를 조직 장면으로 확장시켜 그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완벽주의를 적응적인 개념(개인기준 완벽주의)과 부적응적 개념(평가염려 완벽주의)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목표지향성을 매개로 능동-수동 지연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지연행동을 수동적 지연행동과 능동적 지연행동으로 구분하여 개인의 부적응적 방어기제로만 여겨왔던 지연행동에 대해서 새로운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직 장면에서 능동적으로 지연행동하는 직장인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존 연구에서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을 다양한 차원을 가진 개념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혼재된 결과가 나타났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목표지향성은 다양한 수행환경에 의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직장인들이 회피적인 목표지향성을 작동시킬 수 있는 단서들은 제거하고, 학습적인 목표를 가지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 조직은 성과중심적 분위기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직장인들의 실패에 대한 공포를 줄여주고 조직구성원들이 보다 학습적인 목표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 내 구성원들의 지연행동이 반드시 개인의 부적응적인 특성과 동기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지연

행동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능동적 지연행동은 마감시간 내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 위한 의도적인 지연행동이며, 시간적 압력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능동적 지연행동을 하는 직장인들을 질책하거나 압박을 주는 행위는 오히려 직무수행에 있어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는 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일부학자들(Van Eerde, 2003b; Cohen & Ferrari, 2010; Grant, 2016)은 지연행동이 업무에서 창의적 성과를 낸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업 특성과 직장인의 개인 특성을 고려해서 지연행동을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기존의 학업장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있던 척도를 조직 장면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수동적 지연행동 척도는 조직상황뿐만 아니라 일반적 상황을 포함하고 있기 조직의 세부적인 맥락을 반영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직 맥락을 반영한 지연행동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한다면 조직 내 지연행동을 보다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공통방법편향(common method bias)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인 완벽주의와 개인의 동기적 특성인 목표지향성에 따라 직장인의 지연행동을 알아보고자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능동 지연행동 척도의 경우 시간압박 선호, 결과만족, 의도적

지연결정 등 타인이 관찰할 수 없는 특성이 포함되어 있어 타인보고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수동 지연행동의 일부 문항들은 타인에 의해서 보다 정확하게 측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수동 지연행동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외에 관찰가능한 행동적 지표를 사용하여 타인보고로 측정한다면 공통방법편향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단일시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를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 특질로 보고 목표지향성을 상태적인 동기로 간주하였다. 시간경과에 따라 개인의 성격 특질이 동기에 영향을 미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종단적으로 연구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과 관계와 매개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지연행동을 예측하는 개인적 특성과 동기 상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연행동으로 인한 직무수행 결과를 다루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 지연행동은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와 본 연구에서 다룬 능동 지연행동은 오히려 직무에서의 성공을 예측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능동적 지연행동이 직무에서의 성공이나 조직에서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미정 (2006). 완벽주의와 학업 지연행동의 관

- 계: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계수영 (2009). 완벽주의와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솔이, 유태용 (2010). 핵심자기평가와 지속학습활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3, 131-154.
- 김지연, 신희천 (2013). 능동 지연행동 척도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4, 1503-1516.
- 김희정 (2007). 성취목표지향성과 완벽주의성향 및 자기불일치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 (2010). 능동-수동 지연행동에 관련되는 심리적 특성 및 정서적 고통.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진아, 이선희 (2012). 완벽주의가 직무 탈진 및 직업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 85-104.
- 은영신, 유태용, 서학삼 (2012). 주도적 성격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 607-632.
- 이경호 (2010). 성취목표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행동의도와 시간관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화, 류진혜 (2002). 연구논문: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성취목표,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 관련하여. 청소년학연구, 9, 293-316.
- 임성문 (2006). 초기 부적응도식과 만성적 지연행동간의 관계: 매개변인과 경로모형의 탐색.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명인, 오수성, 신현균 (2005). 기능적, 역기능적 완벽주의자의 성공 및 실패 사건 경험에 대한 귀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 709-719.
- 정성훈, 유태용 (2008). 피드백 추구를 위한 모니터링과 묻기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1, 285-312.
- 최슬기 (2014). 능동-수동 지연행동과 삶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상엽 (2008). 실패공포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회피목표지향성, 인지통제의 매개효과와 부모의 성취압력,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mes, C. (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 261-271.
- Bell, B. S., & Kozlowski, W. J. (2002). Goal orientation and ability: Interactive effects on self-efficacy, performance, and knowledg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 497-505.
- Bieling, P. J., Israeli, A., Smith, J., & Antony, M. M. (2003). Making the grade: The behavioral consequences of perfectionism in the classroo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163-178.
- Brett, J. F., & VandeWalle, D. (1999). Goal orientation and goal content as predictors of performance in a training program.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 863-873.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14, 34-52.
- Burns, L. R., Dittmann, K., Nguyen, N. L., & Mitchelson, J. K. (2000). Academic

- procrastination, perfectionism, and control: Associations with vigilant and avoidant coping.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5, 35-46.
- Button, S. B., Mathieu, J. E., & Zajac, D. M. (1996). Goal orientation in organizational research: A conceptual and empirical found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7, 26-48.
- Campbell, J. D. & Di Paula, A. (2002). Perfectionistic self-beliefs: Their relation to personality and goal pursuit,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pp. 181-19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hang, E. C., & Rand, K. L. (2000). Perfectionism as a predictor of subsequent adjustment: Evidence for a specific diathesis-stress mechanis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129-137.
- Chen, G., & Mathieu, J. E. (2008). Goal orientation dispositions and performance trajectories: The roles of supplementary and complementary situational inducement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06, 21-38.
- Choi, J. N., & Moran, S. V. (2009). Why not procrastinat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active procrastination scal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9, 195-212.
- Chu, A. H., & Choi, J. N. (2005). Rethinking procrastination: positive effects of "active" procrastination behavior on attitudes and performanc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5, 245-264.
- Cohen, J. R., & Ferrari, J. R. (2010). Take some time to think this over: The relation between rumination, indecision, and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2, 68-73.
- Dunkley, D. M., & Blankstein, K. R. (2000). Self-critical perfectionism, coping, hassle, and current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 713-730.
- Drucker, P. F. (1980). *Managing in turbulent times*. New York: Harper & Row.
- Dweck, C. S. (1986). Motivational processes affecting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41, 1040-1048.
- Elliot, A. J. (1999). Approach and avoidance motivation and achievement goals. *Educational Psychologist*, 34, 169-189.
- Elliot, A. J., & Church, M. A. (1997).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18-232.
- Elliot, A. J., & McGregor, H. A. (2001). A 2x2 achievement goal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501-519.
- Ellis, A., & Knaus, W. J. (1977). *Overcoming procrastination: How to think and act rationally in spite of life's inevitable hassles*. New York: Institute for Rational Living.
- Eum, K., & Rice, K. G. (2011). Test anxiety, perfectionism, goal orient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Anxiety, Stress, & Coping*, 24, 167-178.
- Ferrari, J. R., Johnson, J. L., & McCown, W. G. (1995). *Procrastination Research* (pp. 21-46).

- New York: Plenum Press.
- Flett, G. L., Blankstein, K. R., Hewitt, P. L., & Koledin, S. (1992). Components of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20, 85-94.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19-126.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559-572.
- Grant, A. M. (2016). *Originals: How non-conformists move the world*. UK: Viking.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 27-33.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owell, A. J., & Watson, D. C. (2007). Procrastination: Associations with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167-178.
- Kanfer, R. (1992). Work motivation: New directions in theory and research. In C. L. Cooper & I. T. Robertson (Eds.),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7, pp. 1-53). London: John Wiley & Sons, Ltd.
- Karabenick, S. A., & Collins-Eaglin, J. (1997). Relation of perceived instructional goals and incentives to college students' use of learning strategies.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65, 331-341.
- Klein, H. J., Noe, R. A., & Wang, C. (2006). Motivation to learn and course outcomes: The impact of delivery mode, learning goal orientation, and perceived barriers and enablers. *Personnel Psychology*, 59, 665-702.
- Klingsieck, K. B. (2013). Procrastination in different life-domains: is procrastination domain specific?. *Current Psychology*, 32, 175-185.
- Knaus, W. J. (2000). Procrastination, blame, and chang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5, 153-166.
- Lay, C. H. (1986). At last, my research article on procrastin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 474-495.
- Lay, C. H., Edwards, J. M., Parker, J. D., & Endler, N. S. (1989). An assessment of appraisal, anxiety, coping, and procrastination during an examination period.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3, 195-208.
- LoCicero, K. A., & Ashby, J. S. (2000).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in middle school age gifted students: A comparison to peers from the general cohort. *Roeper Review*, 22, 182-185.
- McGregor, H. A., & Elliot, A. J. (2002). Achievement goals as predictors of achievement-relevant processes prior to task engag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 381-395.

- Middleton, M. J., & Midgley, C. (1997). Avoiding the demonstration of lack of ability: An underexplored aspect of goal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 710-718.
- Milgram, N. N., Mey-Tal, G., & Levison, Y. (1998). Procrastination, generalized or specific, in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297-316.
- Muszynski, S. Y., & Akamatsu, T. J. (1991). Delay in completion of doctoral dissertations in clinical psycholog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2*, 119-123.
- Nguyen, B., Steel, P., & Ferrari, J. R. (2013). Procrastination's impact in the workplace and the workplace's impact on procrast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election and Assessment, 21*, 388-399.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386-390.
- Payne, S. C., Youngcourt, S. S., & Beaubien, J. M. (2007). A meta-analytic examination of the goal orientation nomological ne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 128-150.
- Pintrich, P. R. (2000). Multiple goals, multiple pathways: The role of goal orientation in learning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 544-555.
- Slaney, R. B., & Ashby, J. S. (1996). Perfectionists: Study of a criterion group.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4*, 393-398.
- Solomon, L. J., & Rothblum, E.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503-509.
- Steel, P. (2007). The nature of procrastination: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of quintessential self-regulatory failure. *Psychological Bulletin, 133*, 65-94.
- Stoeber, J., Stoll, O., Pescheck, E., & Otto, K. (2008). Perfectionism and achievement goals in athletes: Relations with approach and avoidance orientations in mastery and performance goal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9*, 102-121.
- Taura, A. A., Abdullah, M. C., Roslan, S., & Omar, Z. (2015).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task value, self-regulation strategies and active procrastination among pre-service teachers in colleges of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and Counselling, 7*, 11-17.
- Toffler, A. (1981). *The third wave*. New York: Bantam Books.
- Towler, A. J., & Dipboye, R. L. (2001). Effects of trainer expressiveness, organization, and trainee goal orientation on training outcom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 664-673.
- Vacha, E. F., & McBride, M. J. (1993). Cramming: A barrier to student success, a way to beat the system or an effective learning strategy?. *College Student Journal, 27*, 2-11.
- Vandewalle, D. (199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work domain goal orientation instrument.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7*, 995-1015.
- Vandewalle, D., Brown, S. P., Cron, W. L., & Slocum Jr, J. W. (1999). The influence of

- goal orientation and self-regulation tactics on sales performance: A longitudinal field tes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 249-259.
- VandeWalle, D., Cron, W. L., & Slocum Jr, J. W. (2001). The role of goal orientation following performance feedback.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 629-640.
- Van Eerde, W. (2003a). A meta-analytically derived nomological network of procrast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1401-1418.
- Van Eerde, W. (2003b). Procrastination at work and time management train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137, 421-434.
- Verner-Filion, J., & Gaudreau, P. (2010). From perfectionism to academic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achievement goa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 181-186.
- Wolters, C. A. (2003). Regulation of motivation: Evaluating an underemphasized asp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38, 189-205.

1차 원고접수 : 2017. 02. 20

2차 원고접수 : 2017. 00. 00

최종게재결정 : 2017. 05. 02

The Mediating Effect of Goal Orien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Active-Passive Procrastination

Min-Sik Choi

Tae-Yong Yoo

Kwa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goal orien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s perfectionism and active-passive procrastin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227 Korean employees who were working in various organization. Fir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standards perfectionism and learning goal orientation, and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standards perfectionism and avoiding goal orient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learning goal orientation, and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avoiding goal orientation. Second, the learning goal orientation positively related with active procrastination and negatively related with passive procrastination. On the other hand, the avoiding goal orientation positively related with passive procrastination and negatively related with active procrastination. Third, there were full mediating effects of avoiding goal orien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active-passive procrastination.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direc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Key words : *personal-standards perfectionism,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learning goal orientation, avoiding goal orientation, active procrastination, passive procrastination*